

Platon Phaidros Menon

플라톤 / 파이드로스
천병희 / 메논

말이 글에 우선한다_ 문자 발명의 신화(274b~278b)

소크라테스 그렇다면~ 이제 남은 문제는 글쓰기가 바람직한 것인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인가, 무엇이 글쓰기를 바람직한 것으로 만 들고 무엇이 글쓰기를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만드느냐 하는 것 일세. 그렇지 않은가?

파이드로스 네, 그래요.

소크라테스 그렇다면 자네는 수사학에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접근할 때 어떻게 해야 신을 가장 기쁘게 해줄 수 있는지 아는가?

파이드로스 나는 몰라요. 선생님께서는 아시나요?

소크라테스 나는 우리 선조 때부터 전해오는 이야기를 전해줄 수 는 있네. 그것이 진실인지는 그분들만이 알고 있네. 하지만 우리 스스로 그것을 알아내야 한다면, 우리가 인간의 상상 따위에 여전 히 관심을 기울일까?

파이드로스 선생님께서는 우스운 질문을 하시는군요. 그래도 선 생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을 말씀해주세요.

소크라테스 내가 들은 이야기는 다음과 같네. 아이굽토스¹⁹²의 옛 신들 가운데 한 명이 그곳의 나우크라티스¹⁹³에 살고 있었는데, 이 비스¹⁹⁴라는 신성한 새의 주인인 그 신의 이름은 테우트¹⁹⁵였대. 이 신이 처음으로 수와 산수와 기하학과 천문학과 장기나 주사위 같 은 놀이와 무엇보다도 문자를 발명했대. 그때는 상부 지역의 수도 에 살던 타무스¹⁹⁶가 아이굽토스 전체의 왕이었는데, 헬라스¹⁹⁷인

191 신들. 246a 참조.

192 아이굽토스(Aigyptos)는 이집트의 그리스어 이름이다.

193 나우크라티스(Naukratis)는 밀레토스인들이 건설한 하부 이집트의 도시.

194 ibis.

195 Theuth.

196 Thamous.

197 그리스.

들은 이 도시를 아이쿱토스의 테바이¹⁹⁸라고 부르고, 타무스¹⁹⁹를
 암몬²⁰⁰이라고 부른대. 테우트가 타무스를 찾아가서 자기가 발명
 한 기술들을 보여주며 그 기술들이 아이쿱토스 전역에 전파되어
 야 한다고 말하자, 타무스는 각각의 기술이 어떤 이점이 있는지
 e 물었다. 그래서 테우트가 설명하자, 타무스는 틀렸다 싶으면 나무
 라고 맞다 싶으면 칭찬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매 기술
 마다 타무스는 찬반 두 가지 견해를 장황하게 늘어놓았는데, 그것
 을 일일이 이야기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네. 그러나 문자가
 대화의 주제가 되자 테우트가 말했다. “왕이시여, 이 기술을 익히
 면 아이쿱토스인들은 더 지혜로워지고 기억력이 향상될 것입니
 다. 이 기술은 기억력과 지혜의 영약으로 발명된 것이니까요.” 그
 러자 타무스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최고의 기술자 테우트여,
 한 사람에게 전문기술을 발명할 능력이 있다면, 그 기술들을 이용
 하려는 사람들에게 그 기술들이 어느 정도 유해한지 또는 유익한
 275a 지 판단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몫이라오. 지금 그대는 문자의 창안
 자로서 문자를 향한 애정에 이끌려 사실과 상반되는 것을 그것의
 효과라고 말했소. 문자는 실은 그것을 익히는 사람들이 건망증에
 걸리게 할 것이오. 그들은 글로 씌어진 것을 믿기에 기억력을 활용
 해 내부로부터 자력으로 기억하려고 하는 대신 남이 만든 표시들
 에 의해 외부로부터 기억하려고 하니까 말이오. 그러니 그대가 발
 명한 것은 기억의 영약이 아니라 상기(想起)의 영약이오. 그대가
 제자들에게 주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지혜처럼 보이는 것이오.

그대의 제자들은 그대 덕분에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 않고도 많은
 것을 읽을 수 있어 대개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신들이 많이 알고
 b 있는 것처럼 보일 테니 말이오. 또한 그들은 실제로 지혜로운 대
 신 지혜롭게 보이기만 하므로 상중하기가 어려울 것이오.”²⁰¹

파이드로스 소크라테스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아이쿱토스 이야기
 든 그 밖에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다른 곳 이야기든 잘도 지어내시
 는군요.

소크라테스 여보게, 도도네²⁰²에 있는 제우스 신전의 사제들에 따
 르면, 최초의 예언은 참나무에서 들려왔대. 당시 사람들은 자네들
 젊은이들처럼 지혜롭지 못해 순진한 나머지 진실을 말해주기만
 하면 나무나 바위²⁰³에도 기꺼이 귀를 기울였다네. 하지만 자네는
 c 말하는 사람이 누구이며 어느 나라 출신인지 가리는 것 같구먼.
 자네는 그의 말이 맞는지 아닌지에는 관심이 없으니 말일세.

파이드로스 나는 선생님에게 비난받아 마땅해요. 내가 보기에, 문
 자에 관한 테바이 왕²⁰⁴의 말이 옳은 것 같아요.

198 Thebai.

199 ‘신’(theon)이라고 읽지 않고 ‘타무스’(Thamous)라고 읽었다.

200 암몬(Ammon)은 이집트의 최고신이다.

201 테우트와 타무스 이야기는 매미 신화와 마찬가지로 플라톤이 지어낸 이야
 기 같다.

202 주 85 참조.

203 『오뒷세이아』 19권 162~163행 참조.

204 타무스.

소크라테스 그렇다면 수사학 편람을 글로 써서 남기는 사람이나,
 뭔가 확실하고 믿음직한 것을 제공하리라고 믿고 그런 저술을 받
 아들하는 사람은 순진하기 짝이 없으며, 암몬의 예언적인 발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에 틀림없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글로 적
 d 은 말들이 그 저술의 주제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고 있
 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파이드로스 지당하신 말씀이네요.

소크라테스 파이드로스, 글은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으며, 그런 점
 에서 그림과도 같네.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들은 마치 살아 있는
 것처럼 거기에 있지만, 누가 질문을 하면 아주 근엄하게 침묵을
 지킨다네. 글도 마찬가지로일세. 자네는 글이 지성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말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글이 말하는 것들 가운데 어떤 것
 e 에 관해 더 알고 싶어 질문을 하면 글은 매번 한 가지 정보만 제공
 한다네. 일단 글로 적힌 것은 사방으로 떠돌아다니면서 그것을 이
 해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것과 무관한 사람들의 손으로도 굴
 러들어가며, 누구에게 말을 걸어야 하는지 누구에게 말을 걸어서
 는 안 되는지 전혀 분간하지 못한다네. 그리고 푸대접을 받거나
 모욕당하면 그것은 자신을 지킬 수도 자신을 도울 수도 없는지라,
 언제나 아비²⁰⁵의 도움이 필요하다네.

파이드로스 역시 지당하신 말씀이네요.

276a 소크라테스 어떨까? 우리는 글로 쓴 연설의 적출(嫡出) 형인 다른

연설에 관해, 그것이 어떻게 생겨나며, 본성적으로 아우보다 얼마
 나 더 훌륭하고 얼마나 더 능력이 있는지 살펴볼까?

파이드로스 그것은 어떤 것이며, 어떻게 생겨나는 거죠?

소크라테스 그것은 배우는 사람의 혼에 씌어진, 지식과 함께하는
 연설로, 자신을 지킬 줄도 알고, 누구에게 말하고 누구에게 침묵
 해야 하는지도 안다네.

파이드로스 죽은 연설이 아니라 지성인의 살아 있는 연설 말씀이
 군요. 우리는 글로 쓴 연설은 그것의 영상에 불과하다고 말해도
 좋겠지요.

소크라테스 물론이지. 다음 질문에도 대답해주게. 씨앗들을 돌보
 며 거기에서 열매가 맺기를 바라는 지각 있는 농부라면 한여름에 b
 씨앗들을 진지하게 아도니스의 정원²⁰⁶에 뿌려놓고 여드레 만에
 씨앗들이 결실을 맺는 것을 보고 기뻐할까? 만약 농부가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축제일의 흥을 돋우기 위해서가 아닐까? 진지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그는 자신의 농사기술을 이용해 씨앗들을 알
 맞은 토양에 뿌려놓고 그 씨앗들이 여덟 달 만에 결실을 맺는 것
 을 보고 흐뭇해하지 않을까?

파이드로스 그래요, 소크라테스 선생님. 선생님 말씀처럼 그는 둘 c
 중 한쪽은 진지하게 행하고, 다른 쪽은 건성으로 하겠지요.

205 저자.

206 속성 재배용 화분.

소크라테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 올바르고 아름답고 훌륭한지 아는 사람이 자기가 뿌릴 씨앗에 대해 농부보다 더 지각이 없다고 말할 텐가?

파이드로스 물론 그렇지 않지요.

소크라테스 그렇다면 그는 물로, 우리가 잉크라고 부르는 검은 물로 그런 것들을 적느라, 자신을 변호할 수도 진리를 충분히 가르칠 수도 없는 말들을 펜으로 뿌리느라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지는 않을 걸세.

파이드로스 분명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d **소크라테스** 결코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 그가 글을 쓴다면 자신이 늙어서 건망증이 심해질 때에 대비해 자신을 위해, 또한 자신과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을 위해 상기시켜주는 것들을 쌓아두려고 재미 삼아 문자의 정원에 씨를 뿌리며 정원에 꽃이 만발하는 것을 보고 흐뭇해할 것이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른 놀이에 빠져 술잔치 따위로 자신에게 물을 대줄 때, 그는 아마도 술잔치 대신 내가 방금 말한 소일거리로 시간을 보낼 것이네.

e **파이드로스** 소크라테스 선생님, 정의나 선생님께서 언급하신 주제들에 관해 이야기하며 말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하찮은 소일거리에 견주어 정말 멋진 소일거리겠네요.

소크라테스 여보게 파이드로스, 자네 말이 맞네. 하지만 그런 주제들은 진지하게 다루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데, 그것은 문답법

전문가가 걸맞은 혼을 선택하여 그 혼 안에 자신도 지킬 수 있고 자신을 심어준 사람도 지켜줄 수 있는 말들을 심고 씨 뿌릴 때 가능하네. 그런 말들은 결실을 맺지 못하기는커녕 씨앗을 품고 있고, 그 씨앗으로부터 다른 토양에서 다른 씨앗들이 자라난다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본디 씨앗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씨앗을 가진 사람은 인간으로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네.

파이드로스 그래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워요.

소크라테스 파이드로스, 우리는 이런 점들에 합의했으니, 다른 점들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을 걸세.

파이드로스 어떤 점들 말인가요?

소크라테스 우리가 지금의 결론에 도달하기 전에 고찰하려고 했던 것들 말일세. 우리는 연설문 작성과 관련하여 뤼시아스에게 가해진 비난을 검토하고, 어떤 연설이 전문기술에 맞게 작성된 것이고 어떤 연설이 전문기술에 어긋나게 작성된 것인지 알아보려 했네. 그런데 무엇이 전문기술에 맞고, 무엇이 맞지 않는지는 우리가 충분히 밝혀낸 것 같네.

파이드로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는지 다시 상기시켜주세요.

소크라테스 첫째, 자네는 말이나 글의 주제에 관해 진실을 알아야 하네. 주제 전체를 정의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정의한 다음에

277a

b

는 주제를 더 이상 나눌 수 없을 때까지 분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일세. 둘째, 자네는 똑같은 방법으로 혼을 구분하여 개개의 혼
 c 에 맞는 연설을 찾아내 자네의 연설들을 그에 맞게 정리 정돈한 다음 복잡한 혼에게는 복잡하고 포괄적인 연설을, 단순한 혼에게는 단순한 연설을 제공해야 하네.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기 전에는 가르치기 위해서든 설득하기 위해서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전문기술에 맞게 연설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걸세. 우리가 앞서 논의한 것은 모두 그런 취지였네.

파이드로스 네, 그래요.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 그런 것 같았어요.

d **소크라테스** 어떤가? 연설을 하거나 작성하는 것이 고상한 일이나 수치스러운 짓이나, 어떤 경우에 그것이 비난받아 마땅하고 어떤 경우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우리의 다른 문제로 되돌아가서, 이 문제는 잠시 전에 우리가 말한 것²⁰⁷에 의해 밝혀진 것 같네 그려.

파이드로스 무엇이 밝혀졌다는 거죠?

소크라테스 만약 뤼시아스나 다른 어떤 사람이 사적이거나 공적인 일로 과거나 미래에 연설문을 쓰면서, 이를테면 법안을 제의하는 등 정치가로서 연설문을 작성하면서 거기에 영구불변의 진리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작성자는 남이 실제로 비난하건 비난하지 않건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것 말일세. 왜냐하면 깨어 있건 잠들어 있건 정의와 불의, 선과 악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은
 e 설사 대중이 이구동성으로 찬동하다 해도 정말이지 비난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일세.

파이드로스 면할 수 없겠지요.

소크라테스 그와는 달리 누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고 가정해보게. 어떤 주제에 관해 글로 쓴 연설에는 필연적으로 재미를 위한 것들이 많이 포함되기 마련이며, 운문이나 산문으로 쓴 어떤 연설도 진지하게 주목할 만한 가치는 없다. 그 점은 문제를 제기하거나 가르치려 하지 않고 설득만을 노리는 음유시인들의 음송도 마찬가지이다. 실제로 가장 훌륭한 연설도 기껏해야 이미 알고 있는
 278a 것을 상기시켜줄 뿐이다. 정의와 미와 선에 관해 설명하고 가르치기 위해 진실로 듣는 사람의 혼 안에 쓴 말들만이 명료하고 완전하며 주목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말들은 그의 적자(嫡子)들이라고 불리어 마땅한데, 첫째, 그의 내부에 그런 것이 발견된다면 그의 내부의 말들이 그렇고, 둘째, 그의 내부의 말들의 자식과 형제들로서 다른 사람들의 혼 안에 바르게 자란 말들이
 b 그렇다. 그는 다른 종류의 말들에는 등을 돌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파이드로스, 그런 사람이야말로 자네와 내가 본받기를 원하는 사람일 것이네.

파이드로스 그것이야말로 진실로 내 소원이자 바람이에요.